"文대통령, '송영무 · 조대엽 임명 연기' 당 요청 수용"

우원식 "국회 정상화 위해 시간달라"…文대통령에게 요청

靑 "추경 · 정부조직법 野 협조 당부…충분히 이해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정 정상화를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연기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이들의 임명을 보류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 회의에서 "어제 저녁 청와대가 정무수석을 보내 원내대표인 제게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전해왔다"며 "전 수석은 법이 정한 재송부 기간이 지나 부득이하게 두 분을 내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에 대해 저는 고심 끝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에게 며칠의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생을 위해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병헌 정무수석은 전날 밤 늦게 우 원내대표를 만나 임명시한이 지난 송·조 두 후보자의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임명 연기를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전 수석으로부터 (전날 우 원내대표 만남 결과를) 보고받고, 우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을 들은 뒤 (임명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송·조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에 변동을 줄만큼 큰 흠결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 인사와 추경·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현안들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추경을 장관 인사와 딜(deal)하는 것은 인사권을 잘못 행사하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기본 철학"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남편 당선시 靑초청" 김정숙 여사, 전남 낙도 주민 재회 눈앞

현행 선거법 · 김영란법 교통편의 · 숙식제공 불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전남지역 낙도 주민 3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문 후보의 '호남 특보'를 지원한 김 여사는 매주 광주·전남지역을 도는 가운데 신안 자은도와 완도 보길·소안·노화도, 영광 낙월도 등 전남 낙도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김 여사는 낙도 곳곳의 경로당 등을 돌고 1박까지 하며 섬사람들의 애환을 직접 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주민들에게 "제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꼭 한 번 청와대에 초청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최근 미국 방문과 G20 참석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주민들의 초청을 지시, 조만간 '재회'를 앞두고 있다.

현행 '선거법'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교통편의와 숙식제공 등이 불가피하지만, 상당수 주민이 자비부담을 하더라도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해 청와대에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윤호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전대 출마…수구야당과 다른 야당 돼야"

"안철수, '이유미 사과' 천연(遷延) 당에 도움 안 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2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언젠가 우리도 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찾아드리고 싶다"며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 지지자들과 당원들께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서 자부심을 찾아드리고 싶다. 꿈을 찾아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기에는 제대로 된 장수가 필요하다. 위기에는 돌파력이 필요하다"며 "다른 건 몰라도 위기를 돌파하는 데에는 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유효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위기를 돌파하는 데에는 방향성이 중요하고 동시에 속도감이 중요하다"며 "제2의 몽골기병론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의 경쟁자로서 국민 속으로 파고들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국민의당의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며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러나 과연 창당 이후 1년 반 동안 국민의당 주인이 당원이었나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 당헌은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며 당의 의사는 당원이 결정한다'라고 흐리멍텅하게 돼 있다.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당 주인이 당원이라는 당원주권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향후 당 노선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개혁야당이다. 수구야당과는 분명히 다른 야당"이라며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는 광장의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구세력을 주변화하는 전면에 서야 하는 것"이라고 보수야당과의 노선 구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안철수 전 대표가 '조작 파문'에 대한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해 "위기관리의 기본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조직"이라며 "시간을 천연(遷延·일을 미루고 지체한다는 뜻)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석춘 "감옥 간 朴 출당은 시체에 칼질하는 것"

"朴,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 당해"
"국정 농단인지 아닌지 잘 몰라"
"개혁 쉽지 않아…같이 죽을 각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에 대해 "당에서 일방적으로 감옥에 계신 박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 하는 건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의 자유한국당, 얼마 전 새누리당은 잘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그렇지만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잘못만 있느냐,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금 이 당이 '박근혜당'으로서 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1%, 털끝만큼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며 "사실 이미 탈 박근혜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그렇게 돼 있는 당에서 다시 현실적으로 감옥에 계신 분을 출당 조치해서 무얼 얻을 수 있느냐"며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를 엮으려는데 없어서 검찰이 고생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의 실체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무엇을 어겼는지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탄핵"이라며 "지금 형을 얼마나 사느냐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농단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길 언론이 다 받아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고 있는 걸 반영하는 단어 선택"이라며 "농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는 건 제가 잘 모르는 일"이라며 "그런데 탄핵 때 새누리당 모습은 지리멸렬했다. 그걸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류 위원장은 "저는 아마 전사하게 될 것이다. 제가 원하는 당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 문제를 겪다보면 상대방과 같이 논개같이 빠져서 같이 죽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개혁은 쉽지 않다. 같이 죽어야 된다. 같이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물까지 말할 수준은 못 된다"면서도 "당의 어떤 기득권과 연계돼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당이 이념적 가치에서 너무나 좌클릭된 사람들이 많았다"며 "그런 정책을 이제 다 재검토해서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